

2024년 08월 14일 33주간

제24-33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31과 우리의 연약함, 죄와 형벌

성경말씀 로마서 7장 18~25절(신약p.248)
요한일서 1장 8절 ~ 2장 6절

암송구절 로마서 7장 24절(신약 p.248)

찬 송 찬송가 251(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8(통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본 문 이 해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다시 빠지는 나 자신을 통해,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곤고함을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듭난 성도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곤고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사도 바울은 육신에 선했던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하였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조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낱 ‘자기 의’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선을 행할 줄 모르는 무능함과 악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않는 연약함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지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2~23절

-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보충설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건짐 받은 것을 깨닫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성도의 실존을 사도 바울은 “한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 (23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곤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은밀하게 짓는 죄악이 죄의 법 아래 놓인 우리를 보여줍니다.

3.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우리가 누구에게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25절

-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충설명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한 지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탄식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어 나의 악함에 절망하게 하고, 고령으로써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에 선한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의 작사가는 영국의 유명 시인인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입니다. 그는 영국의 첫 수상이었던 할아버지와 궁정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고 엘리트 변호사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여읜 탓에 우울증을 겪었고, 수차례의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경험했고, 이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자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나눔

-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끊지 못한 나의 죄를 나누어 봅시다.

기도

- 날마다 죄를 짓는 나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적용

- 내가 끊어내야 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가지씩 끊어봅시다.